

특별활동 시작, 빠를수록 좋다



Extracurricular Activities

과외활동에 얼마나 깊이 있게 헌신했나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열정을 가진 학생은 그 활동에 깊이 있게 그리고 오래 활동을 한다. 여러 해 연속으로 한 조직의 일원이 되면 해당 주제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항상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과외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주제가 전공 또는 희망 진로와 관련이 있다면 유용할 것이다.

과외 활동은 입학사정관에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관심 분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과외 활동에 대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리더십이다. 과외 활동에 참여한 후 리더십을 발휘하여 리더의 자리에 오른다면 해당 주제에 대한 헌신과 자기 계발을 보여줄 수 있다. 리더십이란 학교 서클 활동에서의 역할을 말한다.

과외활동이 클럽 기반인지 여부는 참여하는 과외활동의 유형이나 습득한 기술만큼 중요하지 않다. 클럽 기반의 과외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지만, 그 외의 과외 활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클럽 기반 과외 활동은 활동을 감독하는 전담 리더가 있는 체계적인 구조가 많다. 하지만 학교 밖의 과외 활동은 학생의 주도성이 더 많이 요구된다. 매 단계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활동할 여지가 많다. 학교 클럽 기반 활동과 마찬가지로 열정을 발휘하는 동시에 클럽에서 배울 수 없는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대학 입시를 위한 액티비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8학년부터 기초를 닦아 9학년부터 본격 시작을 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11학년, 그것도 여름 방학이 되어서야 부랴 부랴 준비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급조된 액티비티는 입학 사정관들에게 결코 좋게 비춰지지 않는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최상위권이다. 그러므로 성적으로는 더이상 변별력이 없다. 에세이, 추천서, 액티비티에서 당락이 갈린다.

분명히 입학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GPA와 점수다. 대학은 지원자가 학교에서 학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입학 사정관이 과외 활동(특별활동)과 Common App 에세이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과외활동을 통해 사정관은 지원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 지원자의 경험과 에세이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장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가능하면 10.11학년때보다 9학년때부터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깊이 있게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취업 잘되는데 학비 비싼 대학 왜 가나”

미국에서 고용인구 급감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대학들이 비상에 걸렸다. 부족한 노동력으로 근로자들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고등학생들이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16~24세 연령층의 대학 진학률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66.2%에서 지난해 62%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70.1%로 최고치를 찍은 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16~19세 노동자 실업률은 9.2%로 7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에 대학 학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자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금까지 함께 높아지면서 비싼 학비를 내면서까지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것도 이유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레스토랑과 테마파크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2배 이상 늘었다고 WSJ는 전했다.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0% 증가한 데 비해 레저·접객업에 종사하는 일반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30% 뛰었다.

제조업과 물류업도 일손이 부족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레스토랑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 중간값은 14달러로 최저임금의 거의 2배에 육박했



다'고 말했다.

대학 학위는 필요 없지만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일자리 임금은 더 높다고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실제로 기계공은 시간당 23.32달러, 목수는 24.71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국 전체 평균 임금 중간값인 22.26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집리크루터의 줄리아 폴락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학 학사 학위가 없어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임금도 괜찮은데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 대학 학비는 비싸기로 유명하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연 평균 사립대 등록금은 3만8,185달러, 공립대는 2만 2,698달러 수준이다. 일부 대학은 8만 달러에 육박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싼 학비 탓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오죽하면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추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상원의원이 된 2004년이 되어서야 ‘학자금 대출’ 모두 갚았다고 했다. 당시 그의 나이 43세였다.

사진=shutterstock

타운뉴스 www.townnewsusa.com

행복한 소식 가득 전합니다.

좋은 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는 1994년 창간 이래
남가주 지역 한인과 함께
호흡해 온 신문입니다.

타운뉴스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T.562.404.0027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